

# 파니움 - 숫자 십삼

## 파니움으로의 귀환

Jeff Pippenger

2026-02-17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변화산에 들르는 그 여정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때의 오순절기와 결부되며 레위기 23장의 스물두 절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선에 기초하여 구축된 그 선상에서, 나팔절의 이정표에 도달하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레위기 23장, 십자가, 오순절,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사람을 보낸 일은, 제삼시, 제육시, 제구시의 상징과 함께, 선에 선을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한데 모아진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삼시, 제육시, 제구시, 오순절에 베드로의 제삼시와 제구시, 그리고 고넬료의 제구시, 읍바에서의 베드로의 제육시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제삼시는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과 연결된다.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한 파니움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요엘서를 강론하였으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부여졌던 것과 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여졌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후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부여 주심은 말세에 있을 성령의 부여 주심을 예표하였다. 말세의 그 부여 주심은 이중적이며, 9/11에 있었던 성령의 뿌림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일요일 법령에까지 이르는 한밤중 소리의 선포로 나아가고, 이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되는데, 바로 그곳과 그때에 늦은비가 한량없이 부어지게 된다.

그러즉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합당하게 이른 비를 주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려 주시리라.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어 치운 그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요엘 2:23-25.

베드로는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이른비의 절제된 뿌림의 역사에, 그리고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점증하는 반역의 네 세대를 표상하는 파괴된 '연수'를 회복하는 늦은비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성전에서 제구시에 베드로는 요엘서의 '연수의 회복'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돌이키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심의 때들이 이를 때에 너희 죄가 도말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가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를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의 때까지라. 모세가 참으로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무엇을 너희에게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에서 멸절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 곧 말한 자마다 역시 이 날들을 미리 예언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19-24.

죄의 도말은 조사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사역이며, 그 도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베드로전서 4:17-19.

베드로는 오순절에, 또한 해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요엘서가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마쳐지고 그 후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일요일 법령을 표상한다. 그가 일요일 법령 때 전하는 기별은 밤중 소리가 임할 때 선포된 그 동일한 기별이다. 알파 선포는 오메가 선포로 끝나는 예언적 기간의 시작이다. 베드로는 그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며, 그 기별은 권능을 받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이슬람의 나귀가 풀리는 것으로 표지된다. 그 나귀는 밤중 소리의 시작을 표하기 위하여 풀리며, 밤중 소리의 결론인 일요일 법령 때에 다시 풀린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또한 이슬람이 미합중국을 타격할 것을 예언한 자들을 대표한다. 한밤중의 외침에서 베드로가 전한 기별은 첫 실망과 지체의 때의 시작을 표시하였던 기별에 대한 정정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니엘 11장 14절의 성취로서 2024년에 도래하여 2025년 5월 8일 최초의 미국인 교황의 선출로 종결된 첫 기초 시험을 통과하고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나팔절로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레위기 23장으로 표상된 오순절기의 세 번째 시험이자 시금석이다. 화이트 자매가 지적한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한 원리는 또한 단순한 기초 산술이기도 하다. 그녀는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 기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베드로가 오순절기의 일요일 법령에서 요엘서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순절기의 시금석이자 세 번째 시험인 한밤중 외침의 기별 선포가 시작될 때에도 그는 요엘서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2023년 12월 31일에 봉인이 풀림으로써 시작된 세 단계의 시험 과정 동안 충실한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가 그 세 번째 단계에 있다면, 그는 앞선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 왔음이 분명하다.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4,000의 인침 기간은 9/11에 시작되었고, 그것은 기초로 돌아가라는 9/11의 나팔 소리로 표상된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열었으며, 이어 2020년 7월 18일의 첫째 실망의 시험이 도래하였다. 이 역사에서 셋째 시험은 일요일 법령이다. 예언적 광야가 2020년 7월 18일에 도래하였고, 그 광야의 기간 중 2023년 7월에 "음성"이 외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2023년 12월 31일, 9/11로부터 22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 해제가 시작되었다. 2,300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인 일요일 법령까지, 2023년부터 이어지는 기간은 "23"으로 시작하여 "23"으로 끝나는 것으로 식별된다. 이는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이 일요일 법령 때의 닫힌 문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2,300년의 예언은

2,300이라는 수의 "23"으로 표상된다.

1844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가 종결된 해였다. 그 역사는 1798년에 첫째 천사가 도래함으로 시작되었고, 46년 뒤인 1844년에 끝났다. 그 46년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들어오신 밀러파의 성전을 표상한다. 인간의 성전은 남녀 모두에게 "23"개의 염색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23"은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시작하신 사역의 표징이 된다. 그 사역은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실재를 설명하시기 위해 자연 세계를 사용하시며, 2,300년의 종결점인 1844년에 시작된 그 사역은 "23" 남성 염색체와 "23" 여성 염색체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남자가 여자와 혼인할 때 그들은 한 몸이 되며, 그 혼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시작하신 일이다. 1844년의 닫힌 문은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과 상응하며, 그 닫힌 문의 상징은 "23"이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요일 법령의 "23"까지는 알파 "23"으로 시작하여 오메가 "23"으로 끝나는 한 시기를 가리킨다. 또한 그 시기는 십사만 사천의 성전의 시기를 표상한다. 바로 그 동일한 역사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의 프랙탈이다. 1844년은 "23"이라는 수로 표상되며,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의 시작을 가리킨다. 9/11은 산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의 시작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9/11 역시 "23"이라는 수를 지닌다.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의 기간은 알파 "23"과 오메가 "23"을 가진 기간이다. 2023년에서 일요일 법령까지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의 프랙탈이며, 그 기간에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 세워진다. 밀러주의 성전은 사십육 년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말세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며, 재림운동의 시작에서의 밀러주의 사십육 년은 재림운동의 종결에서의 동일한 기간을 예표하고, 그 기간은 "23"으로 시작하여 "23"으로 끝나 밀러주의의 수 사십육을 산출한다.

그 세 가지 역사 모두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나타낸다(밀러주의자들,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 그리고 2023년에서 일요일 법령까지). 그 역사는 2023년 12월 31일에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신 미가엘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었고, 미가엘은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부활을 행하실 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하신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9.

미가엘은 대천사이며,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하는 그의 음성이고, 유다서는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켰다고 전한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훼방하는 고발을 감히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유다서 1:9.

그리스도께서는 대천사 미가엘로서 2023년 12월 31일에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의 인봉을 푸셨고, 그때 2020년 7월 18일에 죽임을 당하였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셨다. 그 후 알파 외적 기초의 시험이 임하였다. 9/11에 강림한 천사는 신실한 자들을 밀러주의의 기초들로 돌아오도록 부르면서 예레미야의 나팔을 불었고, 이에 병행하여 미가엘의 나팔이 그 기초에 대한 시험을 개시하였다. 그 시험은 다니엘 11장

14절로 표상되는데, 거기에서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외적 이상을 확립한다. 밀러주의자들은 그 절을 성취하고 그 이상을 확립한 이가 로마임을 비정하였다.

2025년 5월 8일부터 모퉁잇돌과 기초석 위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1989년에 봉인 해제된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확립된 1996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에, 2023년 12월 31일에 봉인 해제된 메시지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1989년 메시지의 1996년 공식화는 그 역사적 주체가 1776년에 도래한 뒤 220년이 지나 이루어졌다. 이슬람의 예언적 현현을 통하여 2001년 9월 11일에 그 1996년 공식화가 확증되었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 2023년의 봉인 해제가 뒤따랐다.

베드로는 기초와 성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이 거룩한 역사의 사자들을 대표한다. 성전의 시험에는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기별을 정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1989년의 기별이 1996년에 정식화된 지 삼십 년이 지난 때, 성전의 시험에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에 관한 기별을 정정하고 이어서 재선포하는 사역이 포함된다. 1989년의 기별의 정식화는 1996년에 Time of the End라 불리는 잡지의 발간으로 표상되었다. 그 잡지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을 다루었고, 미국의 일요일법을 식별하였다. 섭리적으로, 수년 전 이미 Future for America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비활동 상태였던 한 사역 단체가, 1989년의 기별에 아무런 빛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사역 단체의 이전 책임자들에 의해 우리 사역에 넘겨졌다.

1996년에 우리 사역은 Future for America로 전환되었고,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미래를 지목하는 기별을 담은 간행물이 발간되었다. 미국은 1776년에 예언적 부상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2"년 뒤인 1798년, 곧 끝의 때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는데, 1776년으로부터 "220"년 후였다. 1996년에 예언 속 미국에 관한 기별이 정식화되었다. 1776년부터의 "220"년과, 그 지점에서 1798년까지의 "22"년은 윌리엄 밀러와 연결된다. 그는 1831년에 그의 첫 공개 설교를 전하였는데,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 출판으로부터 "220"년 후였다. 재림주의의 시작과 끝은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 기별의 정식화를 강조한다.

1996년에서 30년 후인 2026년에, 성전의 시험에는 2020년 7월 18일의 기별을 정정하는 사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1989년의 알파 기별, 곧 1996년에 정식화된 최후 세대를 위한 기별은, 기별을 정정하고 정식화하는 시험으로 마무리되는 30년의 기간을 시작하였다. 그 30년은 밤중소리의 기별을 정식화할 14만 4천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베드로는 두 번째 오메가 성전 시험의 기간 동안 그 일을 성취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화이트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오류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신다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한다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이 시대에 합당한 보배로운 빛이 임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위험들을 보여 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들에 대한 가장 면밀하고 비판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진술은 이 글 전체를 종결지을 본문의 일부이다. 연재 글들과 우리의 안식일 Zoom 모임들에서, 나는 다니엘서 11장 10-15절을 고찰하는 가운데 몇몇 상징들을 혼동하였고, 필요한 정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니움—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전투에 관한 연재의 결론을 추구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파니움으로 돌아갈 때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곧 파니움에서 베드로에 의해 표상되는 추가적인 증거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예증하는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6절에 대한 고찰로 돌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9월에 논의를 중단하였으므로, 약 5개월이 경과하였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은혜와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서 자랄 때마다 그들은 그의 말씀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를 끊임없이 얻게 된다. 그들은 그 거룩한 진리들 속에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분별하게 된다.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 역사에서 참되었으며, 이와 같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쇠퇴할 때에는 진리의 지식에서 더 나아가기를 멈추려는 경향이 언제나 있어 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받은 빛에 만족하여 안주하며, 성경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를 단념시킨다. 그들은 보수적으로 변하여 논의를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논쟁이나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을 연구해도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고,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성경을 찾아보게 만들 만한 의견 차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현재의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심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시대를 위한 사역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오면, 지금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입장을 검토해 보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큰 무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해한다고 당연시하는 이들이 많으나,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서 떨어져 홀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해야 하게 될 때, 자신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일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실 것이다. 다른 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 그들을 체질하여, 알곡에서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호소하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위험들을 보여 주는 성경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입장들을 지극히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모든 국면과 입장이 기도와 금식으로 철저하고도 끈기 있게 탐구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는가에 관한 추정이나 분명하지 않은 관념들 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시험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이 자기 믿음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공회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동하라, 선동하라, 선동하라.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조항들로 여기는 교리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결코 전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논증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논증들은 반대자를 잠잠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리를 영화롭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건전한 논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면밀하고도 철저한 검토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논쟁가로서 스스로를 훈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 큰 위험이 있다. 반대자를 대할 때에는, 단지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그의 마음에 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지적 발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철저하고 끊임없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자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빛의 한 줄기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첫 빛줄기를 붙잡아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더 밝은 빛을 얻어 다른 이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일해하며 현재 받은 조명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하여 비치고 있는 더해지고 또 끊임없이 더해지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현재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더 많은 진리와 더 큰 빛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게 만든 자만심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우편과 좌편에서, 앞과 뒤에서 역사하는 때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잠들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행동하도록 일깨우는 음성이 들리기를 뜻하신다.

하늘로부터 비추는 광선을 받아들이도록 영혼을 열기보다는, 일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해 왔다. 언론과 강단을 통해 성경의 영감에 관하여,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처럼 중대한 주제에 대하여,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가 없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이론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영향들에 많은 적든 좌우되며, 그들을 지혜롭거나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만들기와는 거리가 먼 유전적·후천적으로 배양된 성향들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죄하려 들고 무엇이 신적인 것이며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권면 없이 일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러한 일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결과는, 그 일에 관여한 자에게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모두

재앙적일 것이다. 영감의 본질에 관하여 제시된 이론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회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유한한 존재들이 그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스스로 성경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말하기를, '이 구절은 필요하고, 저 구절은 필요하지 않으며, 영감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성경의 유일한 부분인 구약 성경에 관하여 그와 같은 지시를 주지 않으셨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구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안에 제시된 위대한 주제들을 더욱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왔고, 그분이 그들에게 맡기신 귀한 진리들을 상실하였다. 이 진리들은 그 참된 의미를 가리는 미신적 형식과 예식들로 덮여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채를 흐리게 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는 그것들을 귀한 보석으로서 새로운 장식들에 놓으셨다. 그는, 옛 익숙한 진리들의 반복을 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이 참된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보이셨는데, 그 영광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일찍이 인식된 바가 없었다. 그 자신이 이 계시된 진리들의 저자이시므로, 그는 그 참뜻을 백성에게 열어 보이시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비성결한 상태, 곧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 맞추기 위하여 채택했던 곡해와 거짓 이론들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었다. 그는 이 진리들에서 생명과 생기 있는 능력을 찾아 간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 원래의 신선함과 힘을 온전히 지닌 채로 그것들을 세상에 돌려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면, 그가 이루어 오신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다. 성경의 진리들은 관습과 전통과 거짓 교리로 다시금 가려졌다. 대중적 신학의 그릇된 가르침은 수천 수만의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을 만들어 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단정하며 비난하는 오류와 모순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교황권의 암흑 시대 동안 채택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품도록 이끌림을 받아 왔는데, 이는 그 시대의 오류와 전통에 미혹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졌던 것과 같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다. 성경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가르침과 모범으로 그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진리들을 세상에 제시하고자 힘쓰자.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찬미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어 온 악들이 눈에 띄지 않게 개인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을 차단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라. 인간의 지혜가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그 권위를 감히 약화시키려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엄숙한 경고는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경계가 되어야 한다. 나의 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Testimonies, 제5권, 707-711쪽.